

〈가족의식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가족범위·부모부양 등에서 견해 차이

“부모도 가족” 한국 95.5%·일본 52.2%

우리나라 사람의 95.5%가 가족범위에 자신의 부모를, 84.9%가 배우자 부모 등을 포함시킨 반면 일본은 52.2%만이 자신의 부모를 22.4%가 배우자 부모를 가족구성원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연구는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교수팀이 일본의 〈기타큐슈 아시아여성교류포럼〉과 공동으로 조사한 〈가족의식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것.

서울과 일본 후쿠오카현의 20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1천6백4명(서울. 91년)과 1천7백36명(후쿠오카. 89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는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가족 유대감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가족중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반면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물질과 현실지향적이면서 집단간의 조화와 사회공동체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았다.

가족범위를 묻는 질문에서 서울시민의 대부분은 자신의 부모(95.5%), 배우자의 부모(84.9%), 형제자매(80.3%)를 가족성원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 후쿠오카현민은 이와 다른 응답을 보였다. 일본인은 52.2%만이 자신의 부모를 가족이라 여기며 배우자 부모(22.4%)와, 형제자매(30.7%)를 가족으로 보는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또 서울시민의 52.7%는 노부모 부양을 당연히 여기거나 38.1%는 상황에 따라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한 반면 일본인은 “상황에 따라서(47.8%)”가 “당연히 부양해야 한다(34.7%)” 보다 높았다. 더욱이 부모부양은 자식의 의무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에서는 서울 1.7%에 비해 일본은 7.8%나 됐다.

노후생활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은 배우자에게(46.5%), 자녀나 손자에게(29.7%)의지하겠다고 했으나 일본은 배우자에게(35.3%) 의지하지 않을 경우 자녀(20.2%) 보다는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대답. 이같은

한일 양국의 가족 의식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유교문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고 일본은 자본주의발달에 따른 개인주의사상 강화,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은 우리보다 더 강한 집단응집감과 공동체의식을 지녀 지역공동체 모임에 참가해 활동하는 비율이 서울의 3.9%보다 15배 이상 높아 59.3%나 차지하기도. 서울시민은 오히려 친목회나 향우회(28.2%), 동창회(27.7%) 같은 혈연, 지연, 학연 중심의 모임에 더 참석하고 있었다.